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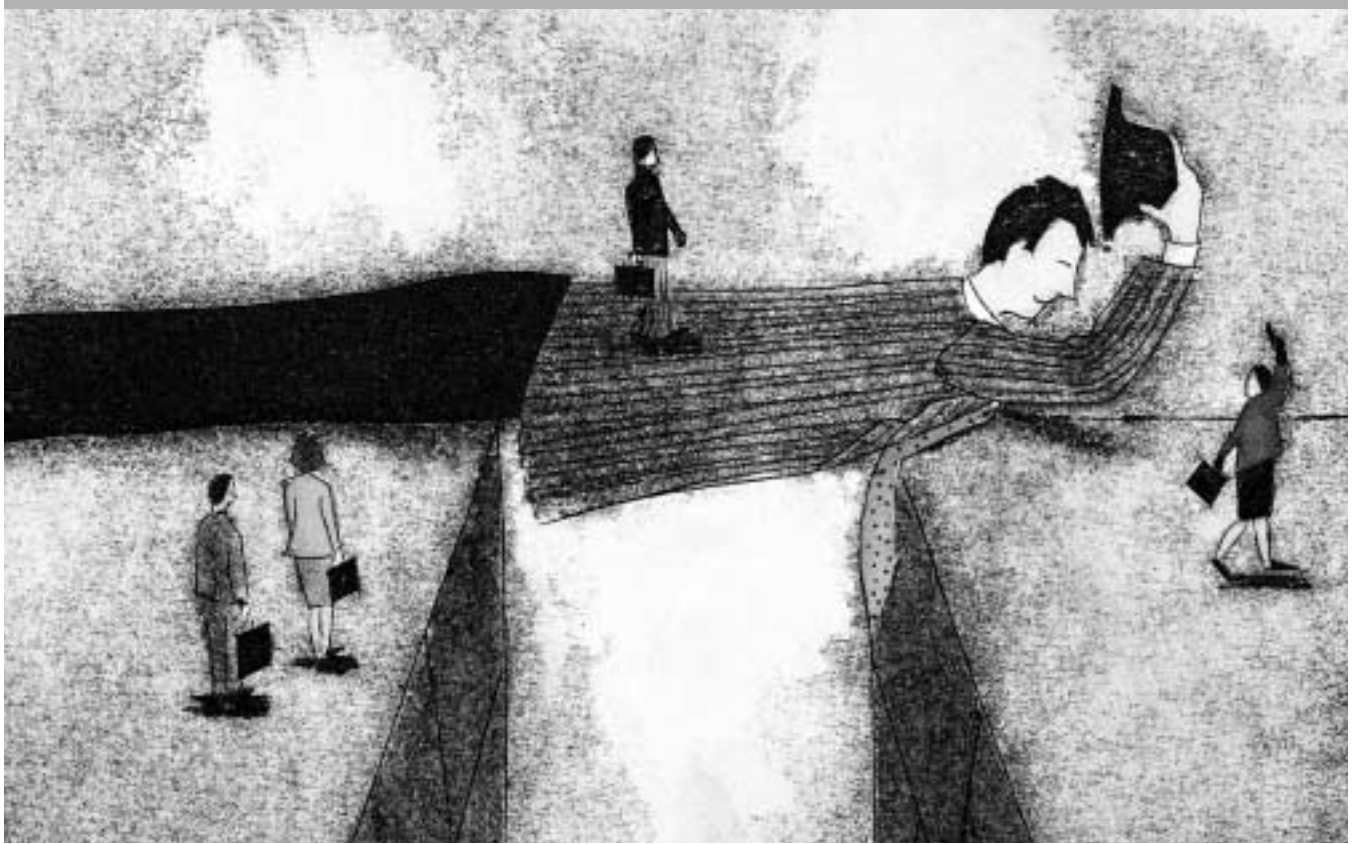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의 고용창출 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최근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핵심 고용창출원으로 중소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새해를 맞아 역할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고용시장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은 그동안 대기업의 고용감소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고용증대를 보여주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고용창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소상공인·소기업 중심의 고용증대, 295만개 중소기업 중 지영업자 비율 과다, 성장성이 약화된 업종에서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는 등 고용기여도가 내용상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질적 측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한 발전과제

- **동반성장의 능동적 주체로의 변모** | 대기업과의 격차 확대, 소상공인의 경영부진 심화 등이 구조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대기업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와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전면적인 시장경쟁의 전개와 국내 산업연관의 약화에 따라 경쟁주체가 아닌 간접적 경쟁주체, 조립대기업의 부품 공급자로서의 부속성 역할로는 성장의 지속성 및 성장과실의 온전한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스스로 독립적인 성장주체로 다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무한경쟁 극복을 위한 글로벌 지향** | 글로벌 경영으로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자 경영의 공간적 영역이 확대된 반면에, 자국 내에서 외국 기업과의 부차별 경쟁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자국시장에서의 보호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소기업은 기존에 주로 내수와 하도급 판매에 의존하던 관행을 버리고 판로 다변화를 도모하는 글로벌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 **추격형 성장에서 시장 선점형 성장으로의 전환** |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의 좁은 틈새에서 선진국에 대한 추격 속도를 높이고 후발개도국의 추위를 막으려면 모방추격형 성장에서 탈피하여 시장선점형 성장을 적극 모색해야 하고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 **전문기업화**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시장은 대부분 협소한 시장에 다수 중소기업이 과도하게 밀집 분포된 형태이거나 대기업에 의한 수요 독점적 경쟁구조를 갖는 하도급거래시장이다. 이러한 과당경쟁 구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단기적 생존전략에 얽매



이제 한으로써 중장기적인 비교우위 차별화 노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으로부터의 기술개발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과당경쟁에 기인한 저수익성과 저부가가치성을 탈피하고 유효경쟁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기업화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산과 하도급분업체제의 질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문기업화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향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정책방향

- **중소·벤처기업 혁신체계 구축** | 기존의 기술 지원시책이라는 협소한 틀만으로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배양을 효과적으로도 모하기 어렵다. 기술성 창업,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 활동, 글로벌 경영 유망기업 등 중소기업 내 혁신 선도 집단 및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창출·확산시켜야 한다.
-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된 창업' 촉진** | 창업 지원시책이 고용 증대를 수반하는 성장체제 구축이라는 상위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질적 고도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창업의 양적 측면에만 경주하던 과거 정책은 지양하고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 중소기업의 준립형태, 성장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일자리의 질과 창출 경로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고용창출가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사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건강한 새싹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원활화를 위한 정책을 강조해야 하겠다.
- **전략적 선택과 집중** | 양극화에 따른 대기업과의 성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가 아닌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즉, 상위계층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혁신을 선도·피급토록 하는 한편, 성장지체 중소기업군의 구조 고도화와 한계기업군의 원활한 구조조정 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